

주류산업에 바란다

1. 서론



박찬성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어쩌다 우리 나라는 8000불 국민소득의 국민들이 세계 제1위의 술 소비왕국이 되었다. 양주수입 1위는 일본 2위는 한국이다. 그러나 인구 1억4천만 국민소득 3만5천불의 일본에 비하면 양주수입 1위는 한국인 것이다. 98년 규제개혁으로 심야영업 해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사회의 고급룸살롱에서 고급프리미엄 위스키 등의 양주는 계속 급속하게 판매증가를 보여왔고 IMF이전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추세로 나가고 있으며 해외 여행객들은 언론보도와 같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급양주들을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실태이다.

우리나라 음주문화는 기업의 접대문화에서부터 청소년들의 폭탄주, 여성들에게까지 점차적으로 술 소비인구가 급신장하고 있으며 밤이면 술의 향연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불야성의 목불인견이다.

음주운전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도 세계수준급이며 점차 알콜중독으로 인한 사회의 간접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우리 소비문화가 서민층과 부유층으로 양극화되면서 부유층들의 음주문화는 국민적 위화감을 일으키고 선진국들의 양주제조회사들이 한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초비상에 걸린 상태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주류업계는 우리상품개발은 뒷전으로 하고 원

■ 目 次 ■

1. 서론
2. 흥청망청 과소비 음주문화
3. 한국의 술집·유흥업소 세계적인 수준
4. 주류산업에 바란다

료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양주수입·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는 주세로 인한 세수확장 및 통상압력 등을 우려하여 이러한 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듯 하다.

이미 3~4만불 소득의 선진국에서는 알콜을 마약으로 분류하여 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에 대한 알콜중독 예방과 청소년들의 술 판매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으며 1995년도에 유럽에서는 알콜헌장을 채택하여 윤리적 원리와 목표를 세우고 절주 행위를 위한 10대 전략을 세워 개인과 사회, 국가, 시민단체에서 총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는 흥청망청 2차, 3차로 이어지고 폭탄주, 음주문화와 청소년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억지로 술을 권하는 잘못된 한국 특유의 술 문화가 만연되어 있을 뿐아니라 유흥업소로 인한 미성년자의 탈선, 매매춘 등의 극적없는 음주문화가 만연되어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과 경제적 손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과 개인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흥업소들은 술을 팔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위해 불법·퇴폐업소가 난무하고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삐끼성행, 술값바가지 행위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관계 공무원 금품상납, 고리 등으로 음성적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오히려 준법 업소들이 피해를 보는 무법천지의 현실이다. 최근에와서야 음주문화에 대한 경종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2 흥청망청 과소비·음주문화

중산층, 부유층, 공직자, 기업의 접대 등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의 수준에서는 감히 바라

볼 수 없는 값비싼 양주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들의 비싼 술값은 검은 돈, 부정부패에 연루된 돈으로 행해지고 있다. 자신의 순수한 월급으로 수십만원, 수백만원하는 술값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사회의 잘못된 음주문화가 우리사회 부정부패의 꼬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류 산업계는 이러한 잘못된 과소비적 음주문화, 불법퇴폐영업, 외화낭비, 국가경쟁력 약화, 사회경제력 손실을 판단하여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소비자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술집·유흥업소 세계적 수준

어느 외국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실토한 얘기가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에 오니 주택가를 비롯하여 변화가, 심지어는 지방 도시까지 술집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국 사람들은 식사보다 술을 더 즐기는 것 같다. 유럽에서는 고급 양주를 마실 때 잔으로 마시거나 카테일을 만들어서 마시는데 한국인들은 비싼 외제 양주를 한 병은 고사하고 몇 병씩 단숨에 들이키는 폭음을 보고 놀랐다”는 실토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술집천국이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가에는 술집이 없으며 설사 술집이 있더라도 장사가 안돼 투자의 가치가 없는 실태이며 대개 퇴근이후 가족과 함께하는 검소한 문화가 자리 잡혔고 술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실태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너도나도 술장사로 돈벌겠다고 수역에서 수십억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술장사를 해보겠다고 난리들이다. 여기에 한국사람들이 접대부가 있어야 술을 마시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여성 접대부를 고용

하여 비생산적인 서비스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서로 경쟁적으로 외제양주 고급술을 파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유원지나 관광지 등에는 어김없이 고급 술집들의 네온사인 이 번쩍거리고 있으며 관광 특구를 지정하여 외국 여행객들을 위한 유흥업소들이 우리나라 청소년 및 젊은층들로 발 디딜틈없이 북적거리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마구잡이로 개발하여 유흥업소들을 유치하고 있는 실태이다. (유흥업소 개업총수치를 보면 40,808개업소로 전년 16,435개업소로 24,373개업소가 늘었다. 룬싸롱이 전년 1,255개에서 5,204개, 호프·소주방 전년 4,393에서 13,080개, 단란주점 4,709개에서 8,843개업소로 늘었다.) 과연 이러한 추세로 좁은 면적에 높은 인구밀도, 모든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국민들이 3~4만불의 선진국 국민들도 마시기 꺼려하는 고급양주들을 몰 마시듯이 마시고 이를 판매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유흥업소들이 상가, 주택가를 파고들어 온다면 한국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거품경제 과소비로 1차 IMF를 맞은 우리 나라는 또다시 경제위기의 요인을 안고 지금도 숨가쁘게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중산층, 부유층, 지도층들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수입양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다면 우리 한국의 장래도 이와 같을 것이다.

4. 주류산업에 바란다.

① 한국의 전통술을 세계상품으로 개발해 역전시키자.

우리 선조들이 빚어 마시던 곡주, 과일주들도 품질개발을 잘하면 세계적인 좋은 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류회사들이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행태로 양주원료액·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에 열을 올린다면 이는 결국 내 살

각아먹기 식의 잘못된 경영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애주가들을 외제 양주에 길을 들여 놓으면 계속적으로 양주수입으로 인한 낭비는 경제를 악화시켜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다. 우리의 농민들이 가꾼 농산물을 원료로 국산 술을 품질을 높여 이를 상품화해서 외국인들이 즐겨 찾고 수출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② 과대한 광고, 신제품생산을 중단하고 전통·품질로 승부를 걸자.

외국의 유명한 술들은 수백년의 전통과 상표를 갖고 품질로 주류산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술의 애호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팔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주류산업도 고유상표를 만들어 몇 백년 간의 오랫동안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그 동안 들인 광고비를 재투자하지 않아도 품질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은 자국 기업들 간의 과다 출혈로 인한 경쟁력·경영악화로 이어지는 예가 각분야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재계에서는 구조조정 못지않게 반드시 개선해야 할 기업윤리인 것이다.

③ 주류제조 회사들의 양주수입을 중단하자.

현재 국내 술 제조 회사들이 양주를 수입하여 국내 자본으로 육성한 주류 유통라인에 유통시킴으로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우리 4,700만 국민들 가운데 대체로 음주인구는 약 2,000만명으로 추산하여 내수판매에 대한 한정량의 술제조판매로 알콜중독으로 인한 사회간접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관계부처, 시민단체, 주류업계 등에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알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선진국과 같이 예방할

필요가 있다.

④ 건전한 음주문화정착에 주류업계가 적극 동참하자.

본 과소비추방국민운동본부는 90년대 초반부터 우리사회의 잘못된 음주문화를 추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심야영업해제를 전후로 해서 3년째 서울시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 동안 서울시 전지역을 합동단속하면서 나온 각종 통계를 보면 우리사회의 술 문화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퇴폐적이며 무법천지였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 동안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미성년자 출입, 접대부 고용, 술 제공, 불법퇴폐업소의 수가 크게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선진국 단계로는 멀고 먼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류산업계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술을 제조해 팔기는 했어도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대처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세금만 내면 기업의 윤리를 다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현 세계적 추세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기업윤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주류업계가 적극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For my part, I travel not to go anywhere, but to go.

I travel for travel's sake., The great affair is to move.

나로서는 어느 목적지에 가고자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가기위해서 여행한다. 나는 여행을 위해서 여행한다. 중요한 것은 이동하는 것이다.

- Robert Louis Stevenson -